

## 영적 상징과 꿈 <38>

### 부제: 주님이 해주시는 꿈 해석 3

**성도 8 (지난호에 이어서)**  
“꿈을 꿴는데, 뱀을 볶아서 우리 막둥이 밥을 차려주는 꿈을 꿴어요.”

#### 이긴자

“뱀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징그러운 얘기인데, 뱀은 한자로 뱀 사(蛇)지? 사(蛇)는 벌레 충(虫)자 옆에 의자 하나 (乚)를 그려 넣은 거니까 네 생물의 왕이 이겨서, 왕이 되어 편안하게 의자에 앉는 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이 올라가고 있구나, 콕집사!”

#### 주해(主解)

: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꿈의 해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징그러운 얘기인데.”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꿈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축(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꿈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세상적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인 상징, 하나님과 마귀 신에 관한 얘기로 보아야 한다는 지침인 것입니다.

자, 이 지침 하에 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콕 집사님이 아들에게 뱀을 볶아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의 기본 ‘플롯(plot)’은 ‘엄마가 아들에게 밥을 차려준다.’가 됩니다.

꿈에서의 콕 집사님의 역할, 말하자면 ‘배역’은 엄마입니다. 이 꿈에서 콕 집사는 콕 집사 자신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역할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상징으로서의 엄마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영적 엄마이니 당연히 주님입니다. 이 꿈의 콕 집사는 이제 콕 집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꿈에 등장하는 콕 집사님의 아들 ‘막둥이’는 누구일까요?

콕 집사의 아들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콕 집사가 영적 엄마라면, 그의 막둥이 아들 또한 ‘영적’ 아들입니다.

자 이제 이 막둥이 아들은 영적 엄마인 주님의 영적 자녀로서의 콕 집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꿈에서의 ‘가족’은 주님의 지체에

따르면 세상적, 육적 가족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듯, 인류는 한 몸입니다. 저 멀리 아담과 헤와의 피를 나눈 인류 전체가 한 몸, 한 피, 한 존재(存在)인 마당에 바로 한 다리 건너 직계 혈육인 내 부모 형제, 자식을 다른 몸,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마귀 세상에서조차 제 가족은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에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꿈에 등장한 가족이 ‘남’일 리 없습니다. 해서 꿈의 충, 영의 세계에 등장한 혈육은 근본적으로 꿈꾼 자 자신입니다.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꿈의 ‘막둥이 아들’은 바로 콕 집사 자신입니다.

자, 여기서 숨 한번 깊이 들이쉬고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인간이 하나님께, 사람이 신에게 제단을 차리고 희생 제물을 바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럼 어리석고 어처구니없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엄마가 자식에게 제 몸을 제 마음을, 제 영과 육을 자식에게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자식이, 인간이 엄마 하나님께 뭔가를 봉헌하고 바친다는 것은 철없는 아이의 착각이요 망상일 뿐입니다.

자, 이제 꿈의 등장인물과 상징들이 말하려는 의미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꿈은 ‘영적 자식인 콕 집사에게 영적 엄마인 주님께서 뱀(蛇) 즉, 네 생물의 왕인 자기 자신을 가까이 영적 양식으로 내어주어 먹여주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콕 집사님이 막둥이한테 차려준 그 한 끼 밥상의 전모(全貌)입니다.

엄마가 자식들에게 차려주는 매일의 밥상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제 자식에게 제 몸을 바치는 매일의 제사이고 봉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육적인 엄마와 자식 사이의 인간적 신뢰로 왜곡해서 들으실 분은 설마 없으시겠지요)

해서 주님이 차려주신 그 뱀(蛇) 밥상 즉, 주님의 영을 통째로 먹은 콕 집사님은 그 영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신(神)이 내 안에 좌정(坐定)하는 장면이니, 종교적 수사(修辭)랄까 장식을 좀 곁들여 표현하자면 한

바탕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의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진술(眞率)은 방금 전 말씀드렸듯, 그저 엄마가 자식에게 제 삶과 피를 먹이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것을 보면 아마도 콕 집사님은 주님을 영적 엄마로 여기며 그 말씀과 은혜를 짝짝 씹어 잘 드시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꿈의 플롯(plot)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상징적 암호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풀려가는지 그 메커니즘이 좀 보이실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꿈, 모든 영적 메시지와 영적 의도들은 애초에 엄마 자식 간의, 그것도 자식을 빼앗긴 엄마와 그 자식 간의 스토리가 기본 골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잃은 엄마의 심정(心憵), 그 절박(切迫)을 빼놓은 알파벳 테크니카 알음알이로는 그 근처에 얼선거릴 수도, 얼선거려서도 아니 됩니다.

이 흐름 그대로 다음 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도 9

“주님이 와이셔츠를 하얗게 입고 우리 누추한 방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다 같이 서 있는데, 제가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도(말씀) 좀 해 주세요.’ 하면서 문을 이렇게 열어 드려니 주님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 이긴자

“주님이 하얗게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얗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자기 자신이 하얗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야. 주님은 항상 하얗지 검은 옷 입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야. 방에 찾아왔다는 것은, 방이라는 건 마음을 가리킨 거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항상 함께한다는 뜻이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뜻이 예요. 또?”

#### 주해(主解)

: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얗게 옷을 입은 것을 주님이 아니라 꿈꾼 자가 하얀 옷을 입은 것으로, 그 마음이 하얗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꿈을 해석할 때의 가장 중요한 근본원칙 또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꿈의 등장인물이나 상징은 거의 대부분 꿈꾼 자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말이지요.

옷은 마음을 가리키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옷은 무조건 절대 청정의 순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꿈에서 등장하는 옷의 상태나 색깔은 주님이 아니라 꿈꾼 자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다리미 꿈에서도 이긴자께서는 마찬가지로의 접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빌리러 온 다리미를 주님이 아니라 꿈꾼 자 본인의 마음 주름을 펴기 위한 도구로 해석해 주셨듯, 이 꿈에서 주님이 입고 등장한 흰옷 또한 꿈꾼 자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이라는 절대적 기준점이 되는 상징이 있기에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 꿈의 다른 장면들 역시 꿈꾼 자의 영적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방은 마음의 방, 꿈꾼 자의 내면입니다. 이 방에 주님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방안에 함께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다른 제단 사람들, 타자(他者)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여러 존재들, 내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여러 조상과 신들의 복합체입니다. 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서서 주님을 맞이했다는 것은 내 안의 제신(諸神)들, 모든 조상과 영



(주님 댁은 포대화상 3)

들이 일제히 주님께 부복(伏)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중 가장 높은 주체영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꿈꾼 자, 의식의 내가 대표로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했으니 이는 내 마음의 가장 높고 귀한 자리, 즉 주체영 자리를 내 주님께 내어주고 있는 거룩하고도 거룩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말씀을 청합니다. 이는 꿈꾼 분의 내면에서 주님을 ‘말씀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은 물론 내 안의 영들과 조상들을 그 ‘말씀’으로 제도하고 구원해줄 존재임을 알고 그것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초대했고 말씀을 청함으로써, 그의 내면에는 말씀의 하나님, 로고

스(logos)가 좌정(坐定)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동학(東學)의 최제우 하나님(설(敎)하신 바 내유강화지교(內有降詒之教)의 완성입니다. 내유(內有)는 ‘안에 임하다’ 강화지교(降詒之教)는 ‘강림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니 내유강화지교(內有降詒之教)는 ‘내 안에 임재하여 스스로 가르치는 말씀의 한울님’입니다.

이 꿈의 내용과 너무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꿈의 주인공, 이긴자 하나님이 바로 최제우의 한울님이요 내유강화지교(內有降詒之教)의 당체(當體), 내유강화지교(內有降詒之教)의 주인공임을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꿈꾼 분이 이 마음의 상태만 잘 유지하신다면 이분이 설명 일차무시이라 하더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공적영지(空寂靈知)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좌정한 주님이 내가 되어 친히 나 대신(代身)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쓸 줄도 몰라 계승(繼承)조차 대필로 남겼을 정도의 일차무시이었던 6조(六祖) 혜능(慧能)이 그 누구보다 찬란한 설법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도 주님과 꿈꾼이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輝 / 의사 kimtaek8@nate.com

## [알림] 신임 발행인 및 편집인

승리신문 발행인에 윤봉수 회장이 맡게 되었고 편집인에 박태선 기자를 선임했습니다.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이긴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The word of Victor Christ's Truth

생각이 흐려지면 피가 썩는다.

▶ When thoughts become clouded, blood rots.

나를 의식하면 피가 썩는다.

▶ When I am conscious of myself, blood decays.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

▶ When humans are greedy, blood rots.

이 사람(이긴자 하나님)이 선포한 새로운 말씀을 과학자들이 앞으로 실험해볼 것이다.

▶ Scientists will experiment with the new world proclaimed by Victor Christ in the future.

첨단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해매는 미지의 문제를 이긴자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있다.

▶ The Victor Christ can solve the unknown problem that high-tech scientists are unable to solve.

사람으로서는 새 나라의 새로운 말씀을 할 수가 없으며 새로운 과학을 논할 수도 없다.

▶ Human can't speak the new words of the neo-human world and can't discuss the new science.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있다고 논한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것이다.

▶ There is no one in this world who has argued that the spirit of God and the spirit of the devil exist in the human heart.\*

by Alice

##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제단이 진정한 “감로대(甘露臺)”

감로가 곧 해인(海印)이요, 해인이 곧 화우로 삼품(하늘 곡식)이라는 것을 <적암유록 해인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秦皇漢武求下不老草不死藥 어데잇소 虹霓七色雲霧中에 甘露如雨海印이라 火雨露二豐海印이라 / 진시황과 한무제가 구하려던 불로초와 불사약이 어디잇소. 일곱색의 무지개, 구름안에 중에 감로가 비와 같으니 이것이 해인이라. 불과 비와 이슬, 이 세 가지 풍부함이 해인이다”

또 감로(甘露)가 생미륵부처님의 분신(分身)이라는 것을 불경에서 입증하고 있는데, <화엄경 26권>에, “일념분신편十方 甘露雨滅煩惱; 한 생각하는 순간에 분신으로 우주에 가득차서 감로를 비처럼 내리시니 중생들의 번뇌가 소멸된다”라고 하였다.

“열석자의 몸으로 다시 오리라”고 했던 증산(甞山) 선생의 <중화경(中和經) 81장> 미륵출세 장(章)에도, “태양같은 생미륵불이 나타나시는 날에 법(法)의 비와 이슬을 내리시니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야 열리기 시작하는지라. 인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알아서 찾아오리니, 좋은 도(好道)는 모든 인간들을 부처님으로 바꾸어 놓게 하여 그 바꾸어진 부처님이 인간사를 완성시키리라(佛日出時에 降法雨露하리니 世間眼目이 今茲始開하리라. 有緣者는 皆悉聞知하리니 好道遷佛하야 佛成人事하리라.)”고 하였다.

북방불기 3007년인 1980년이 되어야 미륵불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 “三千年後 名三世明燈 悉能現見 一切如來本事海知七日後 佛當出現; 삼천년 후에 삼세(과거 현재 미래)의 불을 밝혀 이름을 내어 일체 여래의 근본의 일인 해인(海印)을 능히 나타내어 보여준다. 다시 칠일(7년) 후에 부처가 마땅히 출현한다(화엄경 70권 입법계품 29-10)”, “已經 日月年載; 일과 월은 년으로 적는다(화엄경 七九卷)”라고 했다.



이렇게 감로를 내리는 생미륵부처님이 오시는 해(1980년)보다 훨씬 앞선 100여 년 전에 일본 나라현에 천리교의 창교자

미키 여사(1873년 76세)는 이부리 이조에게 나무로 감로대의 모형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높이가 대략 6자(1.8m)쯤 되었는데, 만든 뒤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2년 후에 창교자 미키 여사(당시 78세)는 신탁을 받았는데, 바로 모형이 아닌 실제로 “감로대(甘露臺)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다. 생

김새가 육각형 아령과 비슷하고 높이가 248m 되는 구조물인데, 지상과 맞닿은 2층의 육각형의 단과 길쭉한 기둥(十段) 그리고 기둥 위에 세 번째의 육각형 단을 쌓은 모습이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세 번째 육각형의 단 위에 감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였다[그림

참조]. 창교자 미키 여사의 명을 받은 석공은 감로대를 2층의 육각형의 단까지 쌓고 사라졌기에, 나머지 십단(十段)의 기둥과 세 번째 육각형의 단은 쌓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후 창교자가 임종할 때까지 13년의 석조 감로대를 완공하지 못했다. ※ 생미륵불 조희성님은 노고산 밀실에서 10단계까지 올라가셔야 완성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291쪽 인용]

과연 감로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불경의 예언대로 전륜성왕(轉輪聖王)이 출현하면 우담화가 핀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사찰마다 우담화 개화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전륜성왕은 곧 생미륵부처님을 뜻하며, 목운(木運) 영모님을 이어 두 번째 해와 이긴자 그리고 세 번째 아담 이긴자이며 금운(金運) 되신 생미륵불이 소사(素砂)에 있는 제단(성전 명칭)이 열석자로 등록에서 미세한 육각형 형태의 입자들로 구성된 감로를 내리고 있으니,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제단이 진정한 “감로대(甘露臺)”라고 할 수 있겠다.\*